

안중근을 노래하다: 안중근 관련 한국 시가 연구*

박병훈**

- I. 머리말
- II. 안중근 관련 한국 한시
- III. 안중근 관련 한국 가사
- IV. 안중근 관련 한국 창가
- V. 맺음말

<국문초록>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安重根)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의거는 국내외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는 소설, 전기를 비롯하여 연극, 시가(詩歌) 등으로 다양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 기존 수많은 안중근 연구 가운데 안중근 관련 시가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 창작한 시가만 몇몇 논문에서 다뤄졌을 뿐, 한국인 창작 시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본고는 한국인 창작 안중근 관련 한시(漢詩), 가사(歌辭), 창가(唱歌) 장르를 주목하였다.

항일(抗日)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안중근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항일의식의 표출 및 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한시는 여전히 한글과 병존하며 한시 장르의 생명력이 유지되었다. 주로 저자 사후 혹은 해방 이후 발간된 개인문집 등을 통해 당시 안중근 의거와 그의 죽음에 대한 공감, 추모, 분노 등이 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사는 주로 의병가사·창의가사에서 의병운동과 같은 항일 관련 여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079082)

**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인물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안중근을 항일의 기호로서 부분적으로 소환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신종교와 관련된 인물이 창작한 경우도 있어,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창가는 기존 전통 시가장르와는 다르게 서양의 영향을 받아,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영향을 통해 국내에 빠르게 퍼졌으며, 극조와 연관되어 노래부른다는 특징으로 인해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일제당국은 법령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일의식을 담은 창가집을 압수, 수색하고 또 관련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안중근은 창가를 통해 노래로 불리며 민족의식을 드높이는 인물로 표상되었다.

한시와 가사는 일제강점기에 있어 이미 옛 시대의 유산으로 치부된 장르였으나,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며 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항일에 대한 의지를 안중근이라는 아이콘을 통해 담아내고 있었으며, 새로 유입된 창가 역시 이러한 역할에 일조하였다.

핵심어: 안중근, 한시, 가사, 창가, 항일문학

“그의 正大한 義擧를 노래삼아 부르코자 하니”(『萬古義士 安重根傳』中)

1. 머리말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의거는 국내외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는 소설, 전기를 비롯하여 연극, 시가 등으로 다양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기존 안중근 연구는 한국인 창작 시가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였다.

최형욱은 안중근 관련 중국시가에 있어 가장 왕성한 성과를 내었는데, 기존 선행연구에 있어 중국시가 관련 논의들을 망라하여 소개하고,¹⁾ 『晚淸

1) 양귀숙 외, 『양계초 시문에 나타난 조선문제 인식』, 『중국어인문학』 제26집, 중국인문학회,

『期刊全文數據庫(1833~1911)』와 『民國時期期刊全文數據庫(1911~1949)』 등의 데이터베이스, 朴殷植의 『安重根傳』(1912), 鄭沅의 『安重根』(1917), 鄭洵의 『安重根傳』 등의 안중근 전기문, 金宇鍾·崔書勉의 『安重根-論文·傳記資料』(1994), 華文貴의 『安重根研究』(2009), 金柄珉·李存光의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2014), 李存光·金宰旭의 『中國現代文學與韓國文獻補編』(2020) 등의 안중근 연구 및 중국 현대문학 자료총서를 활용하여 49편의 자료를 제시하였다.²⁾ 그리고 그 내용으로 첫째, 안중근의거에 대한 찬양과 순국에 대한 애도, 둘째, 속국으로서의 한국 인식 및 제삼자적 입장에서의 복잡미묘한 소회³⁾ 등을 꼽았다. 그리고 시가 속에서 형상화된 안중근의 인물 형상화에 활용된 인물로 첫째, ‘자객(刺客)’·‘협사(俠士)’로서 규정할 수 있는 인물, 둘째, ‘영웅(英雄)’·‘지사(志士)’로 규정할 수 있는 인물로 꼽아 분석하였다.⁴⁾ 이외에도 양계초(梁啓超)의 안중근 관련 시문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기도 하였다.⁵⁾

한국인 창작 안중근 관련 시가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박환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안중근에 대한 추모 열기를 다루며, 그중 안중근 관련 시가의 현황과 수용에 대해 밝혔고,⁶⁾ 신운용은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2003; 이등연·양귀숙, 『중국 근대 시가 시가에 나타난 조선 문제 인식』, 『중국인문과학』 제29집, 중국인문학회, 2004; 김진옥, 『안중근 의거를 통한 중국 지식인의 조선 인식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30집, 중국인문학회, 2005; 장효근, 『중국 근대문학 속의 안중근 형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문대일, 『중국 현대 韓人題材詩歌에 나타난 ‘항일’과 ‘독립’ 양상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9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7; 뉴린제·당전, 『동아시아 현대문학 속의 한국 항일영웅 서사』, 『아시아문화연구』 제45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등을 소개하였다. 최형욱, 『안중근 의사를 제제로 한 중국 시가 연구Ⅱ — 특별한 타자 및 제삼자적 인식과 감정의 표현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137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22, 168면, 각주 2번.

2) 최형욱, 위의 논문, 171~172면.

3) 위의 논문, 170면.

4) 최형욱, 『안중근 관련 중국 시가 중의 인물 형상 연구』, 『동양학』 제9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3.

5) 최형욱, 『량계초(梁啓超)의 『추풍단등곡(秋風斷藤曲)』 탐구 -안중근 의거를 찬미한 중국 근대 대표 지식인의 노래와 그 속내-』,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최형욱, 『량치차오 시문 중의 안중근 형상 연구-조선 황실 및 지도층 인물과의 대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2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0.

6) 박환,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안중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0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중국 등에서의 안중근 추모 및 유지계승운동으로 연극, 사진 등의 활동을 밝히면서 창가의 창작과 보급 사항도 개관하였고,⁷⁾ 러시아에서 안중근을 추모하기 위한 노래가 ‘안중근 의가(義歌)’, ‘대한의사 안중근씨 추도가’, ‘안중근 추모가’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⁸⁾ 한편 송영순은 기존 이광수의 장시 <옥중호걸>과 <곰>이 사실은 안중근에 대한 시임을 새로이 밝혔다.⁹⁾ 그러나 이는 직접적으로 한국인 창작 안중근 관련 시가를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아니다. 한국의 전통적 시가장르는 한시(漢詩), 가사(歌辭), 시조(時調) 등으로 다양하며, 이는 개화기, 일제강점기를 거쳐 변용을 겪는다. 또한 창가(唱歌)라는 새로운 형식이 들어오며 인기를 끌었다. 이들 가운데 한시, 가사, 창가 3장르에서 안중근 관련 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¹⁰⁾ 각각의 한 장르만 집중적으로 서술해도 벽찰 터이기에, 본고는 우선적으로 일제강점기¹¹⁾ 안중근 관련 시가 자료 개관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안중근 스스로도 <장부가(丈夫歌)>를 짓기도 하였고,¹²⁾ 유묵(遺墨)으로도 시를 남겼다.¹³⁾ 계봉우는 그의 시적 재능에 감탄하였고, 시

7) 신운용,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의 한인사회의 인식과 반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8) 신운용, 위의 논문, 114면.

9) 송영순, 『이광수의 장시와 안중근과의 연관성 : 『옥중호걸』과 『곰』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35집, 한국시학회, 2012.

10) 시조는 안중근을 다룬 작품 수가 적어 제외하였다. 자유시 등의 장르도 고려 대상이 될 만하나 이는 보다 더 집중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역시 제외하였다. 참고삼아 안중근 관련 時調를 소개해 둔다. “영웅의 흥년피가, 덩덩이 썩지안코 / 황금산의 비가되며, 빅두산의 구름되어. / 원혼을, 쾌히써슬 때썩지, 오락가락.(『영웅혈』, 『대한매일신보』, 1910.3.29.)” “三千萬 우리 同胞 忠臣烈士 누구누구 / 閔忠正公 血竹이며 李俊 先生 割腹은 千萬古의 옷슴이라 將하도다 安重根 義士는 哈濱驛頭에서 拳銃一聲에 伊藤博文을 없애 치우고 膽大하다 尹奉吉 義士는 上海 虹口에서 一聲壁力 白川를 破骨하야 韓國이 자 드러났다 / 우리도 烈烈한 정신을 바다 國土를 死守하세(『金聲玉振(국립한글박물관본)』에는 총 159수의 시조 사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155번이다. 권순희, 『신발굴 시조창 가집 三題』, 『고전과 해석』 제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18면 참조.)”

11) 정확히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거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12) 안중근은 한시로 우선 짓고 한글로도 읊었다. <장부가>는 다음 논문에서 원전비평 및 그 의미가 분석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최원식, 『동양평화론으로 본 안중근』, 『민족문학사연구』 제41집, 민족문학사학회, 2009. 안중근이 직접 지은 한시는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기에 다루지 않는다.

13) 여순 옥중에서 남긴 유묵으로 현재는 국가 보물(569-5)이다. 숭실대학교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東洋大勢思查 東洋대세 생각하니 아득하고 어둡나니

신(詩神), 시선(詩仙), 시왕(詩王)으로까지 추켜올리기도 하였다.¹⁴⁾ 다만 여기서의 안중근 관련 시가는 안중근이 직접 지은 시는 제외되며, 안중근 및 안중근의 의거와 관련한 시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안중근 관련 내용이 몇 구절에 그칠지라도 안중근 관련 시가로 포함하여 다루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전통시가장르인 한시와 가사 및 당시 새로 발달하기 시작한 창가 장르를 중심으로 안중근 관련 시가를 제시하고, 해당 장르의 전통이 안중근의 추모 및 의지 계승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 한다. 이는 기존 소설, 전기, 연극 등에 주로 이뤄졌던 안중근 관련 문학 연구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는 한편, 시가(詩歌)가 안중근을 추모하고 항일정신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갖는 특성을 밝히는 의의를 지닌다. 곧 안중근이라는 항일의 한 아이콘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항일문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II. 안중근 관련 한국 한시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식자층들에게는 여전히 한시에 대한 소양이 요구되었고 또 갖추고 있었다. 한문을 아는 유학자로서 당대의 현실에 대한 우

有志男兒豈安眠	뜻있는 사내, 편한 잠을 어이 이루리오
和局未成猶慷慨	평화정국 못이룸이 이리도 슬픈지고
政略不改眞可憐	침략정책 고치지 않으니 참으로 가엾도다”

안중근 유묵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이 자세하다. 도진순, 『안중근의 근배 유묵과 사카이 요시아키 경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4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23.

- 14) “철친치 원수되는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죽이려고 채가구(蔡家溝)로 가던 전날 밤에 동지 우덕순(禹德淳)으로 더불어 비분격렬하게 서로 화답하여 노래한 글을 들어보라. 어떻게 격분하며 어떻게 장쾌하며 어떻게 충직하던가. … 우리는 이 글을 노래할 때마다 노한 털이 관을 찌르는도다. 뜨거운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도다. 1쪽 지도와 3척 비수로서 천만세 무궁토록 살려던 진시황을 찢러 죽이려고 역수가(易水歌)를 노래하던 다대한 아해 형경(荊卿)이 “바람이 술렁거림이여 역수가 차도다. 장사가 한 번 감이여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다” 함이 우리 훗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동정의 눈물을 흐르게 한다마는 공의 시가(詩歌)에 비교하면 일의 성배는 고사하고 남을 위하여 원수를 갚음에 그 시가다운 가치가 없나니라. … 공은 태백산 배달나무 아래에 강렬하온 시신(詩神)이라 할지며 동해상 봉리방장에 내왕하는 시선(詩仙)이라 할지며 무궁한 이 세상에 첫째가는 시왕(詩王)이라 할지니라.”(윤병석, 『안중근 전기전집』, 국가보훈처, 1995, 518면.)

환의식(憂患意識)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매천(梅泉) 황현(黃玿, 1855~1910)은 식자층의 책임을 통감하며 『절명시(絶命詩)』를 짓고 순국하기도 했던 것이다. 서양의 신학문이 대두되어 기존 유학(儒學)을 비판하는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한문문해력을 갖추고 한시를 창작하는 지식층들은 굳건하였고, 한시 장르의 생명력은 유지되었다. 이들은 막 유입되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근대매체인 신문·잡지에 한시를 기고하는가 하면 조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개인문집을 펴내기도 하였다.¹⁵⁾ 안중근 관련 한시들은 신문·잡지에서보다는 개인문집에 산재해 있다. 문집은 저자의 사망 뒤에 문중에서 엮는 경우가 많기에 그 편찬시기는 상당히 늦어지는데, 아래 문집의 간행년도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걸쳐 있다.

표1. <개인문집 속 안중근 관련 한시>¹⁶⁾

연번	한시제목	작자	문집명
①	聞安義士重根殺伊藤博文	琢窩 鄭機淵(1877~1952)	『琢窩文集』(1954) 권1, 22a
②	聞哈爾濱消息 以詩弔安重根義士	正谷 成煥孚(1870~1947)	『正谷遺集』(1976) 권2, 32a
③	聞安義士重根殺邦讐 三首	菊圃 鄭宅中(1851~1925)	『菊圃遺稿』(『菊圃處士晉陽鄭公遺稿』, 1987) 19a(전1책)
④	聞十三日報 效朱子七首詩意 次其韻	心齋 曹兢燮(1873~1933)	『巖棲集』(미상) 권4, 5b-6b
⑤	聞義兵將安重根報國讎事 三絕	滄江 金澤榮(1850~1927)	『韶濩堂集』 ¹⁷⁾ 권4, 21a-b
⑥	讀安義士重根傳	立巖 南廷瑀(1869~1947)	『立巖集』(1955) 권2, 35a
⑦	讀安烈士重根傳爲題 三首	澤齋 柳潛(1880~1951)	『澤齋集』(1977) 권2, 226

15) 다음의 논문은 일제강점기 동안 간행된 문집이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간행된 문집 총량을 능가했다는 사실을 통해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히 한글과 한문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황위주·김대현·김진근·이상필·이항배, 『일제강점기 전통시각인의 문집 간행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 제41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16) 대구가톨릭대 안중근연구소에서 발간한 다음의 책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되, 문집의 면수 및 간행년도를 찾아 밝혔다. 한편 해방 이후 및 중국인 창작 한시는 제외하였다. 박주 편, 『새로 발굴한 도마 안중근 의사 추모시』, 대구가톨릭대 출판부, 2019.

17) 『韶濩堂集』 간행 관련 사항은 각주 29번 참조.

⑧	讀安義士傳	靜軒 郭鍾千(1895~1970)	『靜軒文集』(1975) 권1, 12b-13a
⑨	題安重根傳後	蔡圃 姜柄旻(1844~1928)	『蔡圃遺集』(1941) 권1, 1b
⑩	讀金滄江詠安重根詩 因次其韻	河鳳壽(?~?)	『柏村先生文集』(1959) 권1, 34a
⑪	歎安義士重根 二首	是菴 李直鉉(1850~1928)	『是菴文集』(미상) 권1, 37b-38a
⑫	悼安義士重根 二絕	老柏軒 鄭載圭(1843~1911)	『老柏軒先生文集』(미상) 권3, 22a-b
⑬	輓安義士重根	懼齋 崔鶴吉(1862~1936)	『懼齋先生文集』(1939) 권1, 45a-b
⑭	挽安義士	菊圃 鄭宅中(1851~1925)	『菊圃遺稿』, 19b(전1책)
⑮	哭安義士重根 二絕	石愚 黃柄權(1869~1945)	『石愚遺稿』(1978) 권1, 1b
⑯	(十哀詩)安應七重根	韓齋 鄭奎榮(1860~1921)	『韓齋集』(1943) 권3, 40b
⑰	挽安義士應七重根	訥菴 李之榮(1855~1931)	『訥菴集』(1962) 권1, 47a
⑱	挽義士安重根	癡齋 徐翰基(1857~1926)	『癡齋遺稿』(1939) 권1, 5b-6a
⑲	追挽安烈士重根	巨山 姜天秀(1863~1951)	『巨山遺稿』(1991) 권1
⑳	嗚呼賦	滄江 金澤榮(1850~1927)	『韶濩堂集』 권6, 28b-29b

1909년 10월 26일 의거 이후, 일제강점기 당시 문인들은 이들 안중근에 대한 신문기사 및 안중근 전기들을 읽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감회를 한 시로 짓기도 하였는데, 이 한시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상 대외적으로 공표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주로 사후 혹은 해방 이후 개인문집 발간을 통해 이러한 시문들이 지금까지 남게 되었다.

이 한시들은 안중근을 추모하고, 애도하며, 그의 죽음에 탄식하는 내용이다. 이는 한시작자층의 우환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한시들 가운데 신문 혹은 전기가 창작의 동기로 작용한 경우가 있다. ①¹⁸⁾『聞安義士重根殺伊藤博文』(鄭機淵), ②『聞哈爾濱消息 以詩弔安重根義士』(成煥孚), ③『聞安義士重根殺邦讐』(鄭宅中), ④『聞十三日報 效朱子七首詩意 次其韻』(曹婉燮), ⑤『聞義兵將安重根報國讎事』(金澤榮)와 같은 한시들은 제목에 ‘聞’이라는 표현을 써서 안중근에 대한 소식을 들은 뒤 일어난 순간적인 감회를 나타내

18) 편의를 위해 표1의 연번을 한시 제목 앞에 표기한다.

었는데, 1909년 안중근 의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경섭(曹鏡燮)의 ④『聞十三日報 效朱子七首詩意』는 제목에 “13일의 소식을 듣고(聞十三日報)”¹⁹⁾란 표현을 써서, 이 한시가 의거 직후의 신문 보도를 본 뒤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한다. 각각의 시들은 문집으로 묶여 나오기에 한편 한편의 작성시기를 알기 어렵지만, 이들 한시들의 구체적 창작시기는 의거 당시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안중근 의거 이후 그에 대한 열렬한 관심에 부응하는 수많은 안중근 전기들이 등장²⁰⁾하였고, 이중 박은식의 『안중근』(1914년)²¹⁾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신홍학우보』²²⁾ 및 『독립신문』²³⁾에 연재되기도 할 정도였다. 일제강점기의 문인들은 단편적 신문기사 외에도 안중근의 전기를 읽고 감발을 얻어 한시를 짓기도 하였다. 곧 ⑥『讀安義士重根傳』(南廷瑀), ⑦『讀安烈士重根傳爲題』(柳潛), ⑧『讀安義士傳』(郭鍾千), ⑨『題安重根傳後』(姜炳炆) 등의 한시는 안중근 전기들의 영향을 제목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郭鍾千의 ⑧『讀安義士傳』은 시를 시작하며 “가을날 등불아래 안공(安公)의 전기를 크게 소리 내어 읽으니 /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나고 감동하여 비분강개(悲憤慷慨)하네”²⁴⁾라 하여 안중근 전기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시 작가 중 김택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택영은 1905년 한국을

19) 의거일인 1909년 10월 26일은 양력이다. 음력으로는 1909년 9월 13일이 된다.

20) 『安重根傳』(金澤榮, 1910), 『大韓偉人 安重根傳』(袁汕子 洪宗杓, 1911), 『三韓義軍參謀中將 安重根傳』(白山浦民, 1913), 『安重根』(滄海老紡室, 1914-15), 『만고의스 안중근전』(桂奉瑀, 1914), 『安重根傳』(李建昇, 1910년대). 이외에도 해방 이전 중국인에 의해 안중근 전기가 간행되었다. 『安重根傳』(葉天倪), 『安重根』(鄭沅) 윤선자, 『중국인 저술 안중근 전기 연구』 『교회사학』 제9집, 수원교회사연구원, 2012, 252면 참조.

21) 중국 상해의 대동원집국이 1912년 출간한 『동서양위인총서(東西洋偉人叢書)』에 실린 뒤, 서문, 제사 등이 추가되어 ‘창해노방실(滄海老紡室)’란 저자명으로 같은 대동원집국에서 재간되었다.

22) 신홍학우단에서 1913년 창간한 잡지로, 신홍학우단은 1913년 서간도 유하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이다. 『신홍학우보』 2권1호(1916.10.)-2권2호(1917.6.). 이 뒤로도 실렸는지는 확실치 않다. 신운용,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의 한인사회의 인식과 반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24면, 각주 90면 참조.

23) 중국에서 한국인이 발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다. 1920년 6월 10일부터 4회간 연재하였다.

24) “秋燈大讀安公傳，令人懷感多慨慷”

떠나 상해 인근의 남통(南通)에 정착하며 저술·출판에 매진하였는데, 안중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보였다. 곧 『擬祭安海州文』(1910)라는 안중근을 기리는 제문을 쓰고, 25) ⑳ 『嗚呼賦』(1910)에서 국망을 탄식하면서도 안중근을 거론하며 희망을 찾기도 하며 26), 『書安明根事』(1916)에서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을 다루었다. 또한 『滄江稿』(1911)에 『安重根傳』을 실어 이른 시기에 안중근전기를 간행하였으며, 27) 이후 박은식의 『安重根』(1914)을 참조하여 이전 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호당집(韶濩堂集)』(1916)에 『安重根傳』을 간행하였다. 28)

그의 시문집 『소호당집』은 크게 6개의 간본, 총 14종으로 개정되어 출간된 바 있는데 29) 이의 초간본(1911) 중 시집(詩集) 부분은 창작연도별로 그

25) 본 글은 제문을 본뜬 擬祭文인데, 직접 제전에 바치거나 그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멀리서 추모하며, 그 장렬한 죽음을 기려 작가를 포함한 산 자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양식이다. 이은영, 『애제문의 특징과 변천과정』, 『동방한문학』 제31집, 동방한문학회, 2006, 32~33면. 이러한 의제문 역시 목적의식면에서 볼 때 본고에서 다루는 장로들과 그 궤를 같이 한다 하겠다. “구한말의 제문은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민족정신이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권회복의 결의를 다지는 글로, 그리고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는 내면의 통한을 표출하는 글로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은영, 앞의 글, 35면.

26) “... 아 슬프다, 이제는 그만이라 / 嗚呼哀哉已矣兮
내 귀신에 어찌겠으며 내 천명에 어찌겠는가 / 吾其無如鬼而無如天
오직 조종조가 선비를 숭상하여 / 獨祖宗之崇儒兮
마침내 의사 안중근 한 사람을 내었다오 / 其終也得一義士安重根
늠름한 기상이 저렇듯 생생하니 / 彼生氣之凜然兮
나라가 다 망했다고 누가 말하리오 / 孰云國之盡圯
바라건대 영령이시여 나를 보소서 / 庶英靈之顧我兮
추란을 손에 쥐고 강가에서 기다리리라 / 攀秋蘭以俟乎江之涘”
한일강계병합의 소식을 듣고 지은 시이다. 『韶濩堂詩集定本』 권6, 賦, 『嗚呼賦 庚戌』 번역은 고전종합DB를 따랐다.

27) 윤선자는 이 전기물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전기라 하였다. 윤선자, 앞의 글, 251면.

28) 이후 『안중근전』은 『소호당집』의 여러 차례 개간으로 인하여 약간씩의 변화가 있다. 최영욱, 『김택영의 안중근 형상화 검토』, 『동양한문학연구』 제35집, 동양한문학회, 2012, 366~367면. 한편 김택영의 『안중근전』 개작 과정과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자세하다. 김중철, 『김택영(金澤榮)의 <안중근전(安重根傳)> 입전(立傳)과 상해(上海)』, 『한중인문학연구』 제41집, 한중인문학회, 2013.

29) 『韶濩堂集』은 初刊本으로 『滄江稿』(1911·1912), 再刊本으로 『韶濩堂集』(1916), 『韶濩堂續集』(1919), 三刊本으로 『精刊 韶濩堂集』(1920), 『精刊 韶濩堂集補』(1921), 『韶濩堂三集』(1922), 四刊本으로 『合刊 韶濩堂集』(1922), 『合刊 韶濩堂集補遺』(1922), 『韶濩堂集續』(1924), 『借樹亭雜收』(1925), 五刊本으로 『重編 韶濩堂集精』(1924), 六刊本으로 『韶濩堂全集』(1925), 『韶濩堂全集補遺』(1925), 『韶濩堂續集』(1927)이 있다. 고전종합DB 정출현 점필재연구소장, 『『소호당집(韶濩堂集)』 해제(解題)』 참조.

가 지은 시들이 실려 있다. ⑤『聞義兵將安重根報國讎事』는 기유년 조에 소개해 있다. 곧 안중근이 의거한 해인 1909년 지은 시이다.

평안도 장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平安壯士目雙張
나라 원수 통쾌하게 죽이기를 양 죽이듯 하였다오	快殺邦讎似殺羊
죽기 전에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未死得聞消息好
국화 옆에서 미친 듯 노래하고 춤춘다오	狂歌亂舞菊花傍

블라디보스토크항 하늘에 소리개가 맴돌더니	海參港裏鵲摩空
하얼빈역 앞에서 붉은 벼락 터트렸네	哈爾濱頭霹火紅
수많은 육대주의 호걸들이	多少六洲豪健客
추풍에 일시에 수저를 떨어뜨렸으리라	一時匙箸落秋風

예로부터 어느 팬들 망하지 않은 나라 있으랴만	從古何嘗國不亡
한결같이 어린애 같이 한심한 신하가	纖兒一例裏金湯
금성탕지를 무너뜨렸지	
하늘을 떠받치는 이 솜씨를 얻도록 해서	但令得此撐天手
망한 이때 도리어 의거의 빛을 발하게 하는구나	却是亡時也有光 ³⁰⁾

해당 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안중근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열독한 박은식의 『안중근』³¹⁾에도 실려 있어 보다 더 의미를 지닌다. 하봉수는 해당 시의 제2수에 차운(次韻)³²⁾하여 ⑩『讀金滄江諫安重根詩因次其韻』을 짓기도 하였는데,³³⁾ 이러한 차운의 행위는 원작(原作)과 차운시(次韻詩)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감정을 더욱 선명하고 깊게 드러낼 수 있게 해준다.³⁴⁾ 하봉수

30) 본 시는 『한국문집총간』 수록 『韶濩堂集』(1922년 간행한 『合刊韶濩堂集』에 이후 간행된 4종 속편을 सह附한 것) 권4에 실린 것을 인용하였다. ‘己酉稿’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따왔다. 박은식의 『안중근』에 『聞哈爾濱消息』이란 이름으로 실렸다.

31) 朴殷植, 『安重根』, 大同編輯局(中國 上海), 1914년 추정.

32) 次韻이란 和韻의 한 종류로 본래 시의 韻字를 순서까지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步韻 혹은 踵韻이라고도 한다. 김보경, 『詩歌創作에 있어서 次韻의 效果와 意義에 대하여—蘇軾의 詩歌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45집, 중국어문연구회, 2010, 46면 참조.

33) “滄溟冤氣歎蒼空 / 化出奇男寸血紅 / 瞥然哈爾濱頭火 / 百世滄溟共仰風”(『柏村先生文集』, 권1, 34a)

는 당시 유행하였던 박은식의 『안중근』을 통해 김택영의 시를 접했을 것이며, 안중근의 의기(義氣)를 노래하는 해당 시에 깊은 감명을 받아 차운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일종의 한시를 통한 정감공동체의 존재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박은식의 『안중근』에는 주증금(周曾錦)의 시 「讀安重根傳」도 함께 실려 있는데, 이 시는 사실 김택영의 부탁으로 중국인 주증금이 안중근에 대해 지은 시이다. 본래는 주증금의 『藏天室詩』에 「韓國金滄江囑詠安重根烈士事」란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박은식의 『안중근』에 와서 「독안중근전」이란 제목으로 바뀌어 실렸다. 이는 재간본 『안중근』을 위해, 김택영이 주증금에게 안중근에 대한 시를 부탁하였고, 자신의 시와 함께 주증금의 시를 보내 실은 것이다. 그렇기에 「독안중근전」이란 제목에서 언급하는 ‘안중근전’은 박은식의 안중근전기 『안중근』이 아닌 김택영의 「안중근전」이다.³⁵⁾ 이와 같은 일화들은 당대 국내외를 넘나드는 한자문명권 지식인 네트워크의 존재를 다시금 일깨워준다.³⁶⁾

한시 관련하여 상해에서 열린 안중근 추도회를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려 한다. 박은식은 『안중근』에서 다음의 추도회와 관련한 부록을 실었다.

모년 3월 26일(안공의 순국일), 해외의 어떤 곳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의 옷차림은 엄숙하였고 얼굴에선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날은 쓸쓸한 찬바람에 비까지 쏟아지니 마치 하늘도 땅도 비감에 잠긴듯했다. 그날의 추도문은 한글로 된 것이 많았다.[동인(同人), 가인(可人), 소양(嘯印), 복원(復源), 천오(天悟), 벽아(霹兒), 소창(少滄), 우혈(友血), 이초(李超), 학고(鶴臯), 박영(樸泳), 철한(鐵漢), 무녕(武寧), 진몽(秦夢), 예봉(銳鋒), 한일(漢一), 석린(石麟), 환동(桓童), 형원(亨媛) 등은 모두 한글로 추도문을 썼다.] 이곳에 한글 활자가 없으므로 골라 실을 수 없고 단지 한문으로 된 연(聯)과 시 몇수만을 부록으로 실는다.³⁷⁾

34) 김보경, 앞의 글, 52면.

35) 김택영과 주증금과 관련한 해당 논의는 양설, 「김택영의 중국 망명기 교유시 연구-장건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 144~146면을 참조함.

36) 김종철은 김택영의 중국 망명 동안 안중근전 입전 과정에 대해 다루며, 동아시아 공동 문어(文語)인 한문(漢文)이 현지 교민, 고국 독자층, 그리고 이주국 국민에게 두루 소통될 수 있었다는 맥락을 짚는다. 김종철, 앞의 글, 24~25면.

37) 尹炳旻,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5, 356면. 원문은 다음과 같다. 『安重根』, 「追悼會附錄」, “某年三月二十六日(安公殉國日), 由海外某所, 舉行追悼大會, 儀容莊嚴, 血淚淋漓, 是

이 추도회에 대해 윤병석은 안중근 순국 3주기인 1913년 10월 26일 상해에서 거행되었고, 박은식, 신규식(申圭植), 그리고 동제사(同濟社) 관련인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⁸⁾ 한글 추도문의 경우는 아마 가사(歌辭) 같은 장르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추도문의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박은식은 중국에서 『안중근』을 간행하였고, 한글활자를 구할 수 없기에, 안중근을 추도한 시문 중 한시만이 부록으로 소개되었다. 이들 시는 동인(同人), 무명(無名), 삼강(三岡), 경농(警農), 동성(東醒)의 연(聯), 그리고 성암(醒庵), 지산(志山), 창주(滄洲), 청령(靑齡), 일석(一石), 반오(般吾), 철아(鐵兒)의 한시 7수가 실려있다. 7수 중 추모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청령과 반오의 한시만 소개해 본다.

큰 의로움과 절개와 충성은 해와 달처럼 밝고	大義貞忠日月明
육대주 건아들 영웅의 이름을 우리른다.	六洲健客仰雄名
장렬하도다, 안공 추모회	壯哉追慕安公會
모든 산하(山河)가 정성을 다 바치네.	水水山山盡獻誠 ³⁹⁾

당당한 의기는 추성(秋城)과 같고,	堂堂義氣似秋城
열사의 이름은 천추에 아름다우리	千載芳流烈士名
추모일, 한 차례 울고 한 차례 노래하며	一哭一歌追慕日
내 끓는 피를 다하여 정성을 드러내네.	傾吾熱血表吾誠 ⁴⁰⁾

안중근의 추모일을 맞이하여 안중근의 의로움을 해와 달에 빚대며 육대주의 사람들과 자연[水水山山]까지도 이름을 우리르고 정성을 바칠 것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울고 노래하며 자신의 끓는 피로 정성을 드러낸다 하여 추모일의 감정을 분출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준다. 1913년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의 의지를 다지며 한시를 통해 안중근을 추모하는 광경에서, 문학을 통

日也風淒雨苦, 天地爲悲, 當日誄詞, 韓文爲多(同人, 可人, 嘯印, 復源, 天悟, 霽兒, 少滄, 友血, 李超, 鶴阜, 樸泳, 鐵漢, 武寧, 秦夢, 銳鋒, 漢一, 石麟, 桓童, 亨媛等 均有文詞, 演說, 悼歌) 此間無韓文印字, 未得選載, 只取漢字聯型與輿詩若干首錄于左”

38)尹炳奭,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5, 356면.

39)尹炳奭,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5, 260면. 번역 필자.

40) 위의 책, 260면. 번역 필자.

한 항일운동의 측면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한시 창작을 통해 안중근을 기리는 행위가 개인적 측면 외에도 공동체적 측면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문식자층은 한말 일제강점하에서도 여전히 한시를 창작하며 식자층의 우환의식을 드러내었고, 안중근에 대한 애도는 그러한 우환의식의 한 작용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공동 문어인 한문 특성상 중국인들도 한시를 지어 안중근을 추모하였고, 중국에서의 추도회에서 한시를 통해 안중근을 기렸다. 한시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 무척 적합한 장르였고, 안중근 관련 한시들은 식자층의 우환의식과 맞물리며 안중근에 대한 추모의 염(念)이 잘 드러난다.

III. 안중근 관련 한국 가사

가사는 조선기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까지 필사본 등을 통해 활발히 창작·전파되었다. 한시·시조·가사 등의 전통 시가장르는 그 익숙함을 바탕으로 근대기 들어서도 여전히 그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가사라는 옛 장르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을 결합시켜 근대기에 불린 가사들을 계몽가사(啓蒙歌辭) 등으로 부르는데,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의 ‘사회등(社會燈)’ 코너에 실린 계몽가사에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대해 사회단을 구성하여 친일행각을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등 당대 사회인식을 가사라는 장르 안에 담아내기도 하였다.⁴¹⁾

안중근 관련 가사들은 주로 창의가사에서 의병운동과 같은 항일 관련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안중근을 항일의 기호로서 부분적으로 소환하는 경우들이 많다.

41) <時間瑣錄>(1909.11.11.), <社會燈>(1909.12.24.), <社會燈>(1909.12.29.), <社會燈>(1910.1.13.), <罪人處判>(1910.1.15.), <社會燈>(1910.4.2.), <社會燈>(1910.4.14.), <小盜大盜>(1910.4.27.) 등이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04년 7월~1910년 8월)의 발행인이 영국인 베델이었기에 일종의 치외법권적 보호를 받아 러일전쟁 이후의 일제의 언론 통제 가운데서도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표2. <안중근 관련 가사>

연번	제목	작자명	출전	첫머리
1	憤痛歌	金大洛	『白下日錄 下』	우습고도 분통하다 無國之民 되달말가 우습고도 憤痛하다 離親去國한단말가
2	大韓復讐歌	金斗滿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대한천지 생장하야 黠로민락 유풍으로 송법 공자 제생니요 궁식 자랑 후학니라
3	申議官倡義歌	申泰植	『韓末義兵資料集』 ⁴²⁾	어와 세상 사람들이 김세형편 드러 보소 아 태조 창업하사 오백여 년 내려올 제
4	無題(獄中歌)	미상	한국가사문학관	○○○○ ○○로다 ○○○에 기기세로 천지망망 무가네라 우해우해 불닛스니
5	驚歎歌	鄭壽承	『萬世仙話』	鳳凰山下 미친손이 四海八方 周遊하여 寂寞山 들어오니 水水山山 낮이설고

우선 김대락(金大洛, 1845~1914)의 「분통가」(憤痛歌)⁴³⁾가 있는데, 안동에서 태어나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대한협회(大韓協會) 안동지부를 조직하여 주권수호활동을 하였다. 1911년 1월 중국 간도로 망명하여 민족운동을 위해 투신하다가 1914년 69세 세상을 떠났다.⁴⁴⁾ 그는 망명 이후의 삶을 일기로 남겼는데, 『西征錄』(1911)과 『白下日錄 上』⁴⁵⁾(1912), 『白下日錄 下』(1913)이다. 「분통가」는 『白下日錄 下』에 실려 있는데, 개인적 정조를 노래한 작품이 아닌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식민지 체제에 대항하는 민족의식을 드러낸 가사라 하겠다. 이 중 안중근과 관련한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한다.

西小門外 處斬當扈 洪在鶴과 再拜하고 海牙談判 괴홀리든 李俊氏를 痛哭하고

4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韓末義兵資料集』,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43) 金大洛, 『白下日錄 下』(1913) 1913. 6월 4일자에 실려 있다. 「분통가」 창작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문으로 <분통가> 한 편을 지어, 그것으로 비통한 심정을 풀고, 부녀자들에게도 내가 전후로 겪은 곤란을 알도록 하였다. 대략 역사가의 필법을 본뵈었는데, 이 또한 나의 본령에 드는 것이다. 뒤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김대락, 『국역 백하일기』,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인문화사, 2011.)

44) 190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45) 『白下日錄』에서 ‘白下’란 백두산 아래를 말한다.

種樓거리 칼딜흐던 李在明을 賀禮하고 哈爾濱을 바라보고 安重根에 酌酒하고
 閔永煥님 디구경과 崔益鉉의 返魂길에 上下千載 돌너보니 古今人物 다할손가

여기서 안중근과 함께 열거되는 이들은 안중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항일운동에 투신했던 당대의 인물들이다. 홍재학(洪在鶴, 1848~1881)은 1881년 개화정책을 이끌던 김홍집(金弘集)·이유원(李裕元)의 관료들과 나아가 국왕까지 비판하는 신사척왜소(辛巳斥倭疏)를 올렸고, 이로 인해 참형을 당하였다. 이준(李儁, 1859~1907)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 한국독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각국 대표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하였다. 1907년 음력 7월 14일 순국하였다. 이재명(李在明, 1887~1910)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 평양역에 대기하다 안창호의 만류로 단념한 바 있는데, 같은 해 12월 명동성당 앞에서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에게 중상을 입히고 체포되어 다음해 1910년 9월 사형을 당하였다.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은 대한제국기 내부대신, 군법교정총재 등을 역임하였는데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 이후 국민에게 각성을 요망하는 유서 등을 남기고 본가에서 자결하여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그가 죽은 뒤 5개월 뒤 집 안에서 붉은 반점을 띤 대나무가 자라났고, 이를 혈죽(血竹)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민영환에 대한 추도가 열화와 같이 일어났다.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을사조약 체결이후 항일의병운동을 일으켰다.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모집하였고, 순창에서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 및 관군과 싸웠으나 체포되어 일본 대마도에 유배되었고 1906년 순국하였다. 최익현의 시신은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본가인 충청도 정산(定山)으로 운구(運柩)되었는데, 장지로 가는 도중 그를 추모하는 인파가 몰려 보름이 걸릴 정도였다.

김대락은 죽음도 불사하고 일본에 항거한 이들 인물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인물들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 안중근은 이러한 항일민족운동의 상징으로 언급되며 결심을 다질 수 있게 하는 동력원으로 작동한다.

두 번째로 간우(澗愚) 김두만(金斗滿, 1872~1918)이 1918년 지은 <대한복수가(大韓復讐歌)>가 있다.⁴⁶⁾ 이는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창의가사(倡

義歌辭)이다.

백동서당 먼양(俛仰)하니 일월정충 향산선생
 칠일만에 아사했네 백이숙제(伯夷叔齊) 놓흔 절개(節介)
 우리 동방(東方) 다시 낮네 망배(望拜)하고 내려나서
 영양(英陽)으로 도라보니 동해(東海) 백백(白白) 천장수(千丈水)에
 불사충혼(不死忠魂) 김 도현이 로중연의 백세고의
 우리 동국(東國) 다시 불쇠 니수 삼산 어대매양
 영천 일처 바라보니 적수 공권 정한직니
 부자구물(父子具沒) 가련(可憐)하다 추상(秋霜) 갓탄 대장기(大將旗)에
 짐망(朕望) 이자(二字) 거러 두고 출사미첩(出師未捷) 죽거시니
장사 영웅 눈물일쇄 이등박문 포살하든

안용칠리 어대 갖노 장부렬기 늠늠(凜凜)하야

두우간(斗牛間)에 빠져서라 수화불탁(水火不擇) 최익현(崔益鉉)니
 이역(異域) 귀신(鬼神) 되야시니 십연지절 북해상에
 소중낭을 따라갔나 국가주석(國家柱石) 민영환(閔泳煥)니
 견위수명(見危授命) 장(壯)할시고 살신성인(殺身成仁) 조흔 날흠
 천추(千秋) 사책(史冊) 삭아질가 혈죽(血竹)이 청청(靑靑)하야
 새한(歲寒) 부조(不凋) 송백(松柏) 갖다 자결(自決)하신 조병세(曹秉世)니
 사직동망(社稷同亡) 하졌더니 처자(妻子)조차 죽어시니 일가충렬(一家忠烈) 거록하다
 이른 충렬 다 없시나 하대(何代) 무현(無賢) 옛말리라
 동방(東方)니 편소(編小)하나 사람조차 편소(編小)하라(「대한복수가」)

경술국치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단식에 들어가 1910년 10월 10일 순국한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1842~1910)부터, 경북 영양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다가 이후 스승 이만도(李晩燾)의 자결 뒤에 전국시대 제나라의 절의의 상징인 노중련(魯仲連)의 ‘도해(蹈海)’ 고사를 본받아 유시를 남기고 동해에 들어가 도해순국(蹈海殉國)한 벽산(碧山) 김도현(金道鉉, 1852~1914), 고종의 밑지를 받고 의병을 일으켰고 아들 정용기(鄭鏞基)와 함께 순국한

46) 이 가사는 당시에는 퍼지지 못하고 원본도 소실되었으나, 김두만의 재종제(再從弟)이자 문인인 자은(紫隱) 김두칠(金斗七)의 암송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krpia) <大韓復讐歌> 해제 참조.

경북 영천의 동암(東巖) 정환직(鄭煥直, 1843~1907)에 이어 안중근이 가사에 등장하고 있다(“이등박문 포살하든 안응칠리 어대 갖노 장부럴기 늴름(凜凜)하야 두우간(斗牛間)애 빠져서라”). 이후 민영환, 조병세가 언급되고 있다.

세 번째로 도암(島庵) 신태식(申泰植, 1864~1932)의 『신의관창의가』(申議官倡義歌)가 있는데, 『창의가』라고도 한다. 이 역시 창의가사라 하겠는데, 독립운동가의 여러 가사 작품⁴⁷⁾ 중 하나이다. 원본은 분실되었고, 후손 신승균이 필사한 것이 남아 있다.

홍덕한 이등박문 대조규 게도해씨여
 만주 대만 투덕하고 조선황서 차자올 제
 만국의 공포하고 자슈 독립 시긴다고
 억조창생 선동시켜 감언어로 휘우더니
 통감이라 자칭하고 국권을 휘여잡고
 간신을 요래하여 살림턴뵈 능탈허니
 천침만육 압감잔코 살지무석 맛당허다(…)
 국운이 불행키로 이럴 수가 잇단 말가
 충의열사 몇몇치며 난신적자 몇몇친고
 충명이 과인키로 역역히 다 말할손가
 만고충신 최면암은 대마도의 아사하고
 사군정충 리준씨는 만리 타국 의국 가서
 만국공회 열좌 중의 간을 내여 피를 품고
 민충정 누현각애 사절죽이 자싱일네
 마디마디 충절일 뿐 엽엽이 잇짜 되고
 생계 대장 원용팔은 원주 옥의 아사하고
 백두 선생 안중근은 수만여리 하리빈에
 이덕방문 살희하고 여순구에 처고당코(<申議官倡義歌>)

47) 고순희는 공식 추서된 독립운동가의 가사 작품으로 <입산가>(이중린), <분통가>(김대략), <문소김씨세덕가>(김조식), <중광가>·<이세가>(나철), <뉴산일록>(김락), <창의가>(신태식), <세덕가>(김병운), <인곡가>(송기식)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개탄이 특징이라 하였다. 고순희, 『일제강점기 <옥중가> 연구』, 『한국시가문학연구』 제 43집, 한국시가문학학회, 2019, 129~130면.

이등박문이 만주와 대만을 훔쳐가져가고 조선에 찾아와 자주독립 시킨다고 감언으로 꼬여 국권을 침탈하였으니, 죽어도 안타까울 것 없음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리하여 충의열사로 최익현, 이준, 민영환, 원용팔⁴⁸⁾을 언급한 뒤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살해하고 여순구(旅順口)에서 처교(處絞) 당했다고 안중근을 거론하고 있다.

네 번째로 「옥중가」이다. 이는 가사문학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가사⁴⁹⁾로 본래 제목이 없는데, 고순희의 명명에 따른 것이다.⁵⁰⁾ 그는 「옥중가」에 대해 440구(4음보 1구)의 장편가사로 1924년 대구 감옥에서 창작된 것이며, 작가를 안동 명문대가 출신의 40세 전후 독립운동가로 직접적으로는 조선 독립운동후원 의용단사건으로 체포된 이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가사로 신태식의 「창의가」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의 투옥 당시 및 감옥 생활을 다루고 있다.⁵¹⁾ 이 「옥중가」는 민영환과 이준, 그리고 안중근을 언급한다.

오더역이 탄날할데 을스도약 통분하다
 승상사당 푸른더는 엽엽히 호소하고
 히아로 오는소식 천고렬스 빅그렸네
합이빈두 벽역불에 자든눈을 번쩍찌니
 국사무쌍 간곳업고 슈운침침 이러난다(<옥중가>)

작자는 을사오적[五大逆]으로 인한 을사조약이 맺어진 상황에 통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집의 푸른대⁵²⁾가 얼마다 호소하고 있으며,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는 할복⁵³⁾하였다고 하

48) 元容八(1862~1907). 강원도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49)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www.gasa.go.kr UCI는 다음과 같다.

G001+KR08-485000101101.D0.V00003194

50) 고순희, 위의 논문.

51) 위의 논문, 107~125면.

52) 민영환의 자결 뒤 그의 옷과 단도를 보관한 협실에서 녹색(綠竹)이 솟아났다 한다. 이를 혈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를 보기 위해 모인 군중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다.

53) 할복은 사실이 아니나, 이명화는 이준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화, 「헤이그특사가 국의 독립운동에

고,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에 자던 눈도 번쩍 깨어났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로 『경탄가』(驚歎歌)가 있다. 『경탄가』는 『만세선화』(萬世仙話) 가사집에 속해있는데, 『만세선화』는 1910년부터 1914년에 걸쳐 정수승(鄭壽承)이 작성한 가사들의 모음집이다. 동학교단 윤림교(雲林敎)의 경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⁵⁴⁾ 일종의 신종교가사인데, 당시의 시대상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경탄가』에서 최익현, 민영환, 안중근을 언급하고 있다.

萬古忠臣	崔勉菴은	第一功名	새겨놓고
當世忠臣	閔忠節은	第二等에	새겨놓고
萬古烈士	安重根은	烈士中에	第一이라
第一功名	새겨내야	名傳千秋	하여주세 (<驚歎歌>)

『경탄가』는 경술년(庚戌年, 1910) 음력 6월 작성되었는데, 한일강제병합 이전의 일본에 격렬히 맞서 순국하기까지 한 순국선열들인 최익현, 민영환, 안중근의 세 인물을 각각 만고충신, 당세충신, 만고열사로 부르고 있다. 최익현은 제일공명(第一功名)으로, 민영환은 제이공명(第二功名)으로 두고, 안중근은 열사중에 제일이기에 최익현과 마찬가지로 제일공명에 두고 그 이름을 천년동안 전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종교교단의 가사에서조차 안중근을 언급하여 그 열사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외에도 영사류(詠史類)⁵⁵⁾의 권병석의 『대한오천년가사』(大韓五千年歌史) 등이 있으나 해당 작품은 1960년 성립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⁵⁶⁾

미친 영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60면.
54)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논문 참조. 박병훈, 『동학가사 『만세선화』 연구』, 『종교와 문화』 제 44집,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23.

55)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아 읊은 가사인데, 크게 보면 詠史, 詠史詩, 史詩 등으로 부르는 장르. 詠史文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최두식, 『韓國詠史文學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56)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무게나 이등방문 우리들에 원수로다 / 북만주 시찰차로 만주가는 소식들고 / 우리의사 안중근이 우덕순 조도선과 / 유동하 함께가서 하루방 역두에서 / 이등방문 총살하니 사천이백 사십삼년 / 시월이십 육일이라 그후에 안이사는 / 일본놈에 잡혀가서 여순에서 사형하나...”

전반적으로 가사에서는 안중근 개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항일인물들 중 하나로 두고,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사회적으로 항일정신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 하겠는데, 이는 한시가 개인의 내면에서 안중근을 추모하고 회고하는 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곧 한시에 비해 가사에서는 안중근과 그 의거가 항일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인물 및 사건으로서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안중근이 항일의 한 기호로서 작동하는, 아이콘화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가사가 당시의 시대상을 바로 바로 반영하는 신문 등에서 개화가사로 나타나거나, 신종교 경전 등에서 경전 내용이 일부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가사가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상을 담는 틀로서의 유연성을 지녔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일 것이다.

IV. 안중근 관련 한국 창가

창가(唱歌)는 엄밀하게 형식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지만, 개항과 함께 서양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기 시작한 일종의 서양식 시가로 이해하는 것이 연구에 있어 효과적이다. 민경찬은 다음과 같이 창가를 포괄적으로 정의 내린다.

음악적 의미에서 창가란, 1945년 이전에 우리 나라에 수입된 모든 서양의 노래와, 동요·대중가요·가곡 등으로 분화되기 이전에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서양식 노래의 총칭이다. 그리고 창가의 범주에는 찬송가를 비롯한 서양의 노래뿐만 아니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들어온 일본의 군가와 식민지 정책을 통해 들어온 일본의 창가 등도 포함된다.⁵⁷⁾

이러한 창가는 곡조를 통해 노래로 불리며 한시, 가사와는 또다른 마음의 감발을 일으켰다. 안중근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창가는 항일 창가인데, 이는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반일·항일의 내용을 담아

57) 민경찬,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1997, 1면.

창작되고 불린 창가이다. 항일창가는 일제당국으로부터 금지·탄압을 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 1915년 한영서원 발행 창가집을 경무부에서 적발한 사건에 대한 언급을 보자.

총독부 당국의 탄압에 의해 항일 창가는 표면상 사라졌지만 뜻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몰래 책으로 만들어져 계속 불리었다. 가령 1915년 윤치호가 경영하는 개성의 한영서원발행의 창가집은 제1차로 40부, 제2차로 99부가 발행되었는데 얼마 후 경기도 경무부에 적발되었다. 그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국가의 흥망 성쇠는 국민의 정신에 있다. 국민의 정신을 感發시키는 것은 가곡이 으뜸이다. 그런 고로 歐米諸國에 있어서는 巨擘의 시인, 음악가의 미묘한 시조 및 가곡으로써 국민의 정신을 함양시켰다. 우리 海東의 조국은 古來 가곡이 없지 않았으나 그 뜻이 대개 淫蕩放逸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는 卽我大韓志士 仁인이 다 같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다. 然이나 현시 유식한 저작에 의한 미묘한 가곡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나 각처에 散材하여 통일된 것이 없다. 이에 있어 同志 서로 參詣하여 현재 諸大家의 가곡 有餘種을 수집 편찬하고 이름지어 창가집이라 한다. -이하생략(경기도 경무부 보고, 불온자 발견 처분 1건 警高機發 제527호, 1915년 11월 13일)⁵⁸⁾

한영서원발행 창가집은 서문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정신에 있고, 국민의 정신을 感發시키기 위해서는 가곡이 으뜸이라 하여, 국민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여러 대가의 가곡을 수집 편찬하여 발행한 창가집이라 밝히고 있다. 이는 당대의 창가의 작용, 목적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창가집들에 대한 탄압의 양상은 통제 법적 장치 마련, 음악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창가책 압수와 발매 금지, 가창 통제, 음반의 검열과 발매금지 및 압수, 불온창가의 단속 및 처벌 등으로 나타났다.⁵⁹⁾ 이러한 탄압은 동시에 음악을 통한 항일과 독립운동의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⁶⁰⁾

58) 박찬호, 『한국가요사』, 현암사, 1992, 50~51면.

59) 김수현, 『일제강점기 음악통제와 애국창가 탄압사례 - 신문기사를 통해 -』, 『한국음악사학보』 제66집, 한국음악사학회, 2021, 5면.

60) 위의 논문, 8면.

이같은 국내에서의 탄압으로 인해 창가집은 해외에서 제작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의 대표적인 항일창가집들로는 『최신창가집 부악전』(最新唱歌集附樂典, 1914)⁶¹⁾과 『애국창가』(愛國唱歌, 1916)가 있다.⁶²⁾ 북간도 광성중학교의 음악교재로 쓰인 『최신창가집』은 1915년 일제보고문서에만 존재가 수록되었다가 1997년 국가보훈처에서 발굴, 출판하면서 비로소 알려진 항일창가집이다. 『애국창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916년 67쪽으로 발행한 등사본이며, 77곡을 악보와 함께 수록하고 있다. 원본이 남아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2011년 8월 24일 지정되었고, 현재는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 소재⁶³⁾해 있다.⁶⁴⁾ 이 두 창가집 중 안중근을 노래한 「영웅모범」(英雄模範)이 공통으로 실려 있다. 『최신창가집』에는 98쪽,⁶⁵⁾ 『애국창가』에는 51쪽이다.⁶⁶⁾ 우선 전체 노래를 소개한다.

- 1절: 계림나라 짐승중에 개와 돼지가 되어도 일본신하 안 되기로
죽기까지 결심한 박제상의 그 충성을 우리 모범하리라
- 2절: 일본나라 인군(人君)을 남자중 삼아 부리고 일본나라 왕후로서
여중삼기 작정한 석우로의 그 장기를 우리 모범하리라
- 3절: 주옥신사(主辱臣死) 중한 의로 금산에서 적을 칠 때 빈주먹에 싸움하며
하나없이 다죽인 조중봉의 칠백의사 우리 모범하리라
- 4절: 한산도의 영등포에 거북선을 타고서 일본군함 수천척을
하나없이 함몰한 이순신의 그 도략(道略) 육도삼략(六道三略) 필자(主)를 우리 모범하리라
- 5절: 홍의(紅衣)입은 천강장군 좌충우돌하면서 쥐와같은 왜놈군
도처에서 싸워 죽이던 광재우의 그 용맹을 우리 모범하리라
- 6절: 의병일으켜 싸우다가 대마도에 잡혀서 일본나라 물과 곡식
먹지 않고 죽으신 최익현의 그 절기를 우리 모범하리라

61) 이하 『최신창가집』으로 호칭한다.

62) 이외의 항일·애국창가집으로는 손봉호 편 필사본 『창가』(1910), 안수산 소장본 『구한말 애국창가집』, 손승용 편 필사본 『창가집』, 명동학교 『신찬창가집』(1913) 등이 있다.

63) 자료번호 3-008961-000.

64) 인천 콘서트 챔버에서 23년 4월 송도 신도시 트라이보울에서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 음반 발매 공연-1916 하와이 호놀룰루 애국창가’를 개최하였고, 유튜브에 노래를 들을 수 있게 공개하였다.

65) 국가보훈처에서 낸 자료집 쪽수로는 142면이다.

66) 작품마다 매겨진 번호로는 51번이다.

7절: 늙은도적 이등박문 하얼빈 당도할 때에 삼발삼중(三發三中) 죽인후에
대한만세 부르던 안중근의 그 의기를 우리 모범하리라⁶⁷⁾

『영웅모범』은 전체 7절로 되어 있는데 다소간 설명이 필요하다. 1절에서 박제상(朴提上, 363~419)의 충성을 노래하였는데, 계림나라는 곧 신라(新羅)를 말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일본으로 가 신라 눌지왕(訥祗王)의 아우 미사흔(末斯欣)을 신라로 도망치게 하였다. 일본왕은 박제상을 유배보낸 뒤 불에 태우고 목을 베었다. 한편 『三國遺事』에는 김제상(金堤上)으로 나오는데, 눌지왕의 아우를 도망치게 한 뒤, 일왕이 김제상에게 신하가 되면 큰 상을 내리겠다 하였으나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될 수 없다 등등의 말을 하여 처참히 죽음을 당했다 한다. “계림나라 짐승중에 개와 돼지가 되어도 일본신하 안 되기로 죽기까지 결심”하였다는 것은 이를 뜻한다. 2절에서는 신라 장군 석우로(昔于老)의 장기(壯氣)를 노래하였는데, 『三國史記』 기록에 따르면 A.D. 253년 “조만간 당신네 국왕을 염전의 노비로 만들고, 왕비는 부엌데기로 만들 것이다.”[早晩, 以汝王爲鹽奴, 王妃爲爨婦]라고 일본의 사신에게 戲言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일본왕이 신라를 공격하였다. 석우로는 결국 책임을 지고 일본에 의해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었다. 3절에서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重峰 趙憲(1544~1592)의 700명의 義士를 노래하였는데, 조헌은 문인들을 이끌어 왜적과 맞서 청주성을 수복하였으나 1592년 8월 금산전투(錦山戰鬪)에서 7백명의 의병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主辱臣死,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이를 씻기 위해 신하가 목숨을 마친다는 말을 통해 조헌을 형상화하였다. 4절의 이순신, 5절의 광개우 역시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이름 높은 인물들이고, 6절의 최익현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마지막 7절에 와서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노래하고, 안중근의 의기를 모범해야 한다고 장대하게 끝을 맺었다.

창가를 통해 안중근을 비롯한 역사적 항일인물들을 소환하여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시 새로운 힘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이들 인물들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도 창가를 부르며 그 인물에 대한 역사를 배워나갔을 것이며, 일본과 관련하여 자신도 또한 그러한 인물을 모범

67) 국가보훈처 편, 『最新唱歌集 附樂典』, 국가보훈처, 142면. 원문을 알아보기 쉽게 운문하였다.

으로 삼겠다고 다짐을 굳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창가집은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일제 강점 이후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이 어려워지자 만주, 러시아, 중국, 미국 등지에서 무관학교들이 설립되어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1911년 6월 길림성(吉林省) 유하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신흥강습소로 출발해 1920년 폐쇄시까지 3,5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던 것이 대표적이다.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군사훈련 외에도 창가 수업을 통해 항일창가⁶⁸⁾를 가르쳐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여기서 불렀던 창가로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신흥무관학교 교가」, 「신흥학우단 단가」, 「신흥학우단가」, 「실락원」, 「정신가」(精神歌), 「애국가」, 「소년남자가」(少年男子歌), 「조국생각」(祖國生覺), 「독립군 용진가」, 「국치추념가」(國恥追念歌), 「도강가」(渡江歌) 등이 존재한다.⁶⁹⁾ 이 중 「독립군 용진가」는 「독립군가」란 이름으로 1917년부터 1920년 중반까지 국외 항일운동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⁷⁰⁾ 항일가요 모음집 『광복의 메아리』, 『倍達의 脈搏: 獨立軍詩歌集』에 각각 실려 있는데 전제 6절 중 제3절에서 안중근이 확인된다. 이 역시 안중근의 의기를 독립군에 되살려 ‘원수’라 지칭되는 일본을 무찌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난다. 해외에서 양성되는 수많은 독립군의 가슴 속에서는 창가를 통해 안중근이 항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독립군들은 힘차게 창가를 부르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1절: 요동·만주 넓은 뜰을 쳐서 파하고 여진국을 토벌하고 개국하옵신
동명왕(東明王)과 이지란(李之蘭)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원수
쳐보세

68) 한편으로 독립군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에서 ‘독립군가’라 부르기도 하였다.

69) 이명숙, 「신흥무관학교의 노래로 본 항일노래의 창작·공유·전승」, 『역사와 현실』 제124집, 한국역사연구회, 2022. 이명숙은 허은(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3.), 원병상(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6.) 등 신흥 관계자의 기록을 통해 곡명이 나온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하고, 이외에는 노동은의 『항일음악 330곡집』(노동은, 『항일음악 330곡집』, 민족문제연구소, 2017.)의 곡명으로 표기하였다. 본고도 이에 따른다.

70) 이명숙, 「신흥무관학교의 노래로 본 항일노래의 창작·공유·전승」, 『역사와 현실』 제124집, 한국역사연구회, 2022, 385면.

- (후렴) 나가세 전쟁장으로 나가세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아갈때에
 독립군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이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
- 2절: 한산도의 왜적들을 쳐서 파하고 청천강수 수병 백만 몰살하옵신
 이순신과 을지공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 쳐보세
- 3절: 배를 갈라 만국회에 피를 뿌리고 육혈포로 만군중에 원수 쫓죽인
 이준씨와 안중근의 의용심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 쳐보세
- 4절: 혈전팔년 동맹국을 쳐서 파하고 영국 기반(羈絆) 벗어나던 미국독립군
 나팔륜과 와성돈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 쳐보세
- 5절: 대포알은 우뢰같이 뜰뜰 올리고 창검빛은 번개같이 번쩍거린다
 우리군대 사격돌격 앞만 향하면 원수머리 낙엽같이 떨어리리라
- 6절: 황민 대관 무찌르고 동경 들리쳐 동서남북 번쩍번쩍 모두 함낙코
 국권을 회복하는 우리독립군 승전고와 만세소리 천지 동캬네기)

한편 1917년 블라디보스톡 한인신보사(韓人新報社)에서 발간한 『애국혼』(愛國魂)에는 민영환, 조병세, 최익현, 이준, 이범진, 이재명, 안명근 등의 순국선열의 약전이 편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만고의사 안중근전』이라는 이름으로 초역되어 있다.⁷²⁾ 『만고의사 안중근전』에는 「우둔수가」(“만났도다 만났도다 원수 너를 만났도다…”)와 연해주에서 불렀던 「안의사 추도가」를 앞에 실었다. 앞서의 경우가 부분적으로만 안중근을 다뤘다면, 이는 안중근을 9절 전반에 걸쳐 노래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안중근의 의거에 대해 다룬 뒤, 안중근을 앞서 간 면암 최익현과 충정공 민영환이 천국에서 맞아줄 것이요, 현재 우리들은 그 뒤를 이어 앞으로 올 이등박문을 당해낼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

- 1절: 충의렐렐 안의사난 디한국민 디표로다
 할빈 저자 아침날에 룡혈포성 핑핑흐니
- 후렴: 영웅일세 영웅일세 만고영웅 안의사라
 나라위해 밝인 몸은 죽어서도 영광이라
- 2절: 五조약과 七협약을 억지로서 테결흐든
 원수일인 이등박문 고훈될줄 뉘알이오

71) 한철수 편, 『배달의 맥박: 독립군시가집』, 송산출판사, 1984, 84면.

72) 윤병석, 앞의 책, 41~42면.

- 3절: 량국군사 헤어지고 텃하이목 놀니엿네
나라수치 시쳤으니 장혹고도 쾌혹도다
- 4절: 국권회복 그날이오 민족보전 이떡로다
아름답고 빛난일흠 천추만세 유전일세
- 5절: 협사 섭정 짝안이오 필부 형경 당홀손가
우리 위헌 몸 바렸으니 뉘가 안이 슬어허라
- 6절: 슬픈눈물 슬픈노리 멀니충훈 추도혹세
의사의사 안의사여 부디부디 눈감으오
- 7절: 최면암과 민충정은 텃당에서 환영혹고
사라잇는 우리들은 동반도에 뒤를 잇네
- 8절: 다른 이등 또 이슬가 근심혹지 마옵시고
우리들의 드난 칼노 만명 이등 당혹리라
- 9절: 만세만세 만만세는 더한데국 만만세라
만세만세 만만세라 안의사의 만만세라⁷³⁾

4장에서 다룬 안중근 관련 창가는 「영웅모범」, 「독립군 용진가」, 「안의사 추도가」 세 편인데, 「영웅모범」, 「독립군 용진가」에서는 파편적으로 안중근의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역사적 항일 관련 인물들을 차례차례 노래하며 항일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당시 가장 최근의 인물인 안중근의 이름은 더욱 각별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가락이 있는 음악의 특성상, 문학성을 담기는 어렵지만 일본에 대항한 한국의 영웅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가운데 안중근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하겠다.

V. 맺음말

안중근은 항일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고, 그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항일 의식의 표출 및 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한시의 경우 개인문집 등을 통해 당시 안중근 의거와 그의 죽음에 대한 공감, 추모, 분노 등이 표출되었고, 박은식의 『안중근』 전기를 통해 1913년 10월 26일 상해에서 열린

73) 윤병석, 앞의 책, 365~366면.

안중근 순국 3주기 추도회의 모습 역시 한시를 통해 남게 되었다. 식자층에게 내재한 우환의식이 안중근 관련 한시들에 맞물리며 안중근에 대한 추모의 감정이 드러났다.

가사는 주로 의병가사·창의가사에서 의병운동과 같은 항일 관련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안중근을 항일의 기호로서 부분적으로 소환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홍재학, 이준, 이재명, 민영환, 최익현, 이만도, 김도현, 정환직, 신태식, 원용팔 등의 인물과 함께 안중근은 호칭되었다. 또한 신종교와 관련된 정수승이 창작한 가사는 안중근 관련 가사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창가는 기존 전통 시가장르와는 다르게 서양의 영향을 받아,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영향을 통해 국내에 빠르게 퍼졌으며, 곡조와 연관되어 노래부른다는 특징으로 인해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일제강점국은 법령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일의식을 담은 창가집을 압수, 수색하고 또 관련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한시와 가사 장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었다. 많은 창가집들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자료가 남아 당시의 안중근을 다시금 소환하여 민족의식을 드높이려는 당시의 노래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한시와 가사는 일제강점기에 있어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산으로 치부된 장르였으나,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며 당대의 정감(情感), 곧 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항일에 대한 의지를 안중근이라는 아이콘을 통해 담아내고 있었다. 한편으로 새로 유입된 창가 역시 이러한 역할에 일조하였다.

본고는 한국인 창작 안중근 관련 시가를 한시, 가사, 창가라는 장르를 통하여 주로 자료적 측면에 치중하여 소개하였다. 한국인 창작 안중근 관련 시가들을 전부 총망라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할 것이다. 안중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초창기인 만큼 시론에 그쳤지만, 추후 보다 많은 자료의 발굴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확장된 연구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국가보훈처 편, 『최신 창가집 부 악전』, 국가보훈처, 1996.
- 김대락, 『국역 백하일기』,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인문화사, 2011.
- 김학길, 『계몽기 시가집』, 문예출판사, 1995.
- 독립군가보존회 편, 『광복의 메아리 : 독립군가곡집』, 세계복음화운동본부출판부, 1982.
-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韓末義兵資料集』,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민족학교, 『항일민족시집』, 영광도서, 2005.
- 박주 편, 『새로 발굴한 도마 안중근 의사 추모시』, 대구가톨릭대 출판부, 2019.
- 신운용 외, 『(안중근자료집11)한국인 집필 안중근 전기1』, 채륜, 2014.
- _____, 『(안중근자료집13)한국인 집필 안중근 전기3』, 채륜, 2016.
- 윤병석, 『안중근전기전집』, 국가보훈처, 1995.
- 鄭壽承, 『萬世仙話』.
- 한철수, 『배달의 맥박 : 독립군시가집』, 독립군시가집편집위원회, 1986.

2. 단행본

- 민경찬,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1997.
- 박찬호, 『한국가요사』, 현암사, 1992.
- 엄만수, 『항일문학의 재조명 : 시가를 중심으로』, 홍익재, 2001.
- 조용만 · 송민호 · 박병채,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현암사, 1982.

3. 논문

- 권순희, 「신발굴 시조창 가집 三題」, 『고전과 해석』 제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7~33면.
- 김보경, 「詩歌創作에 있어서 次韻의 效果와 意義에 대하여—蘇軾의 詩歌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45집, 중국어문학회, 2010, 45~70면.
- 김수현, 「일제강점기 음악통제와 애국창가 탄압사례 - 신문기사를 통해 -」, 『한국음악사학보』 제66집, 한국음악사학회, 2021, 5~49면.
- 김종철, 「김택영(金澤榮)의 <안중근전(安重根傳)> 입전(立傳)과 상해(上海)」, 『한중인문학연구』 제41집, 한중인문학회, 2013, 23~55면.
- 도진순, 「안중근의 근배 유목과 사카이 요시아키 경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4집,

- 한국근현대사학회, 2023, 43~93면.
- 문대일, 『양계초의 尙武精神과 한국 근대문인의 관련 양상』, 『중국어논문역총간』 제39집, 중국어논문역학회, 2016, 85~120면.
- 박병훈, 『동학가사 『만세선화』 연구』, 『종교와 문화』 제44집,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23, 69~110면.
- 박환,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안중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0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61~94면.
- 반혜성, 『국내에서 불린 애국창가의 전개 양상 -1910년을 전후하여 필사된 애국창가집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72집, 한국국악학회, 2022, 87~112면.
- _____,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특징과 가치』, 『동양학』 제85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1, 189~216면.
- 송영순, 『이광수의 장시와 안중근과의 연관성 : 『옥중호걸』과 『곰』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35집, 한국시학회, 2012, 173~200면.
- _____, 『이광수의 장시에 나타난 서사성 연구 -『옥중호걸』, 『곰』, 『극웅행』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83~112면.
- 신운용,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외 한인사회의 인식과 반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99~143면.
- 梁貴淑·金喜成·蔣曉君, 『中國近代關於安重根形象的文學作品分析』, 『中國人文科學』 제39집, 중국인문학회, 2008, 255~270면.
- 양철, 『김택영의 중국 망명기 교유시 연구-장건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401~441면.
- 윤선자, 『중국인 저술 안중근 전기 연구』, 『교회사학』 제9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12, 249~273면.
- 이운조·김형태, 『근대계몽기 시가에 구현된 인물(人物) 유형과 주제의식 연구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88집, 동양고전학회, 2022, 181~210면.
- 이명숙, 『신흥무관학교의 노래로 본 항일노래의 창작·공유·전승』, 『역사와 현실』 제124집, 한국역사연구회, 2022, 401~450면.
- 이명화, 『헤이그특사가 국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63면.
- 이은영, 『애제문의 특징과 변천과정』, 『동방한문학』 제31집, 동방한문학회, 2006, 257~298면.
- 조광, 『안중근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2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180~222면.

- 최두식, 『한국영사문학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최영옥, 『김택영의 안중근 형상화 검토』, 『동양한문학연구』 제35집, 동양한문학회, 2012, 363~392면.
- 최원식, 『동양평화론으로 본 안중근의 「장부가」』, 『민족문학사연구』 제41집, 민족문학사학회, 2009, 266~282면.
- 최형욱, 『안중근 의사를 제재로 한 중국 시가 연구 I - 시가 개관과 안중근 애도·찬양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제58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22, 185~212면.
- _____, 『안중근 의사를 제재로 한 중국 시가 연구 II - 특별한 타자 및 제삼자적 인식과 감정의 표현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137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22, 167~189면.
- _____, 『안중근 관련 중국 시가 중의 인물 형상 연구』, 『동양학』 제9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3, 47~71면.
- _____, 『량치차오 시문 중의 안중근 형상 연구-조선 황실 및 지도층 인물과의 대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2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0, 99~125면.
- _____, 『량계초(梁啓超)의 「추풍단등곡(秋風斷藤曲)」 탐구-안중근 의거를 찬미한 중국 근대 대표 지식인의 노래와 그 속내-』,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291~322면.
- 황위주·김대현·김진균·이상필·이향배, 『일제강점기 전통지식인의 문집 간행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 제41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203~296면.

4. 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도서관 (<https://nl.go.kr/>)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남명학교문헌시스템 (<http://nmh.gnu.ac.kr/service>)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한국역대문집DB (db.mkstudy.com ko-kr)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www.krpia.co.kr)

Singing about Ahn Jung-geun:
A Study of Korean Poetry Related to Ahn Jung-geun

PARK, Byoung Hoon

The event of Ahn Jung-geun's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in Harbin on October 26, 1909, left a profound impression on many peopl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was widely depicted in various literary forms such as novels, biographies, plays, and poetry. Among the numerous studies on Ahn Jung-geun,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Korean-authored poetry related to him, with only a few papers discussing poems written by Chinese authors. This paper focuses on Korean-authored Chinese poetry, *gasa* (歌辭), and *changga* (唱歌) related to Ahn Jung-geun.

Singing about Ahn Jung-geun, who has become an icon of anti-Japanese sentiment, became directly or indirectly linked to the expression and movement of anti-Japanese sentiment. Chinese poetry still coexists with Hangul, maintaining the vitality of the genre. It can be confirmed that expressions of sympathy, mourning, and anger towards Ahn Jung-geun's actions and his death were conveyed mainly through personal collections published after his death or after liberation.

Gasa often reference various individuals related to the anti-Japanese resistance movement,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militia songs and patriotic anthems, with Ahn Jung-geun frequently invoked as a symbol of anti-Japanese sentiment. One of these works was also created by a figure associated with new religions, showcasing a diverse range of aspects.

Changga, unlike traditional genres, were influenced by the West and rapidly spread within the country through Japanese influence, becoming more effective in stirring anti-Japanese sentiment due to their association with melodies. Consequently, the Japanese authorities enacted laws to confiscate and search songbooks containing anti-Japanese sentiment and punished those involved. *Changga* continue to vividly

convey the era and people who sought to elevate national consciousness by invoking Ahn Jung-geun once again.

Chinese poetry and gasa were genres already attributed to ancient tim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yet they still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encapsulating the pain of colonization and determination against Japan through the icon of Ahn Jung-geun. Additionally, the newly introduced changga also contributed to this role.

key words: Ahn Jung-geun, Chinese poetry, gasa(歌辭), and changga(唱歌),
Anti-Japanese Literature

접수일자: 2024. 3. 31.

심사기간: 2024. 4. 1.~2024. 5. 10.

계재결정: 2024. 5. 10.